▪ 교회소식 ▪

1. 장애인선교주일 : 오늘은 장애인 선교주일입니다.
2. 선교회 : 오늘 오후집회는 선교회별 모임입니다.
3. 세월호 4주기 예배 : 안산 분향소에서 열리는 4주기 예배를 위해 교회에서 2:30에 차가 출발합니다.
4. 결혼 : 김지유 씨와 김희연 씨가 결혼합니다. 예식은 21일(토) 오후 12시 신촌성결교회에서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5. 신앙실천 : 몸이 불편한 이의 어려움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맙시다.

* 떡 대접 : 신영신 집사

다음 주 설교 본문	잠15:28~33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2부	김기석	하현철	남명진

4월				
	1부 영접위원	이국노	헌금위원	이부용
	2부 영접위원	김인걸 윤성종 한성건 설규범 이현순 김윤정		
	2부 헌금위원	김정민 진정숙		

오늘 식당 봉사	김윤정 최은미 박시내 김명하 권도연 강향미 오형일 김재영		
다음주식당봉사	이현순 정현선 정영혜 박진숙 임옥기 유병선 박종철 추헌영		
오늘설거지봉사	3여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4여선교회
커피 판매 봉사	3여선교회	다음 주 주차봉사	김중현

2018-15 4월 15일

110 Since 1908·5.1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259 전화: 02)713-5254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부활절 제3주 】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김재흥 목사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38. 예수 우리 왕이여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담임 목사

▲ 경배의 찬송 ····· 36. 주 예수 이름 높이어 ····· 다 함께

▲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쉽게 쓰고 버리는 우리의 행동이 이 지구를 아프게 만들었음을 회개합니다. 땅이 죽고, 강이 죽고, 바다가 죽어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존이 위협받기에 앞서 이미 죽어 버린 생명들이 수도 없이 많음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부디, 우리를 만드신 주님의 마음과 신음하는 피조물들의 아픔을 헤아리며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어느덧 4주기를 맞이한 세월호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사회가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미수습자 다섯 분도 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 엡2:14a,16b ····· 인도자

▲ 교 독 문 ····· 74. 마태복음 5장 ····· 다 함께

▲ 영 광 송 ····· 5. 이 천지간 만물들아 ····· 다 함께

2부대표기도 ····· 곽권희 장로

2부응 답 송 ····· 찬양대

2부찬 양 ····· 246.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 다 함께

▲ 성경봉독 ····· 요일 3:1-7 ····· I. 인도자 II. 허신열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 양 ····· I. 신실하심 ····· 마중물 찬양대
II. 주의 사랑 안에 청파 찬양대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구재원 김남종 오복순 김선지 김영미 김예준 김용길 최영혜 김인석 이선화 김정길 최숙화 김종락 박영신 김진규 김해선 문금석 문병욱 박경애 박기영 박기태 박석원 양선용 박영진 박인혁 고숙이 박재영 이현정 박재우 정충원 박지혜 변재민 이소혜 손이주 안길상 이형숙 유지은 윤성종 김윤정 윤정득 이국노 김민화 이미휘 이순이 이정은 장병준 박소현 정두리 정성식 정영례 정원석 김현영 정종삼 정현숙 조관행 홍선희 조순덕 최욱진 최형주 한상익 정영선 한선희 한성건 정지혜 현 진

감사헌금

강혜린 김나름 김성수 김영미 김와니 권윤경 박교선 박기태 박소영 박기태 박윤지 박재현 박지수 변종복 신영신 이준희 이주희 유성애 이상도 이재삼 전정현 임은영 임종수 정구봉 지영 최철수 곽권희 최희정(조카결혼)
박창복(장례) 무명3

생일감사헌금

구성실 문홍일 이미혜 박지혜 한선희

녹색꿈헌금

김반야 김영호 김주현 김향자

▪ 집 회 안 내 ▪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마음으로 읽는 글** ■

청파교회의 지향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내세우기보다 아는 만큼 실천하기 위해 몸을 낮추는 교회

돈과 지위와 권력이 없어도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교회

내가 나를 발견하려고 애쓸수록, 내가 가난할수록, 내가 깊이 이해할수록 더욱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됨을 확신 시켜주는 교회

부자들과 권력자들의 소리보다는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의 소리를 경청하는 교회

자기의 특권과 다른 사람의 특권을 보호하기보다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교회

가르치는 스승이 됨과 동시에 배우는 제자가 될 줄 알며, 인간을 더 인간답게하는 모든 경험의 중심이 되는 교회

내 양심의 결단을 내림에 있어 가장 폭넓은 자유의 공간을 마련해주는 교회

모든 연약함에 대하여는 항상 부드러우며, 모든 위선에 대하여는 대항할 줄 아는 강직함을 지닌 교회

평화부재의 현실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의 아픔에 동감하며 평화의 씨앗으로 살아가는 교회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물인 자연세계가 파괴되는 것에 반대하여 뭇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자원을 아끼는 녹색교회

이 시대의 생명과 평화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이들과 연대하는 교회

말 씀	**우리도 주님처럼**	김기석 목사
거룩기도		다 함께
2부찬 양	465. 주 믿는 나 남 위해	다 함께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담임 목사
공동체 소식		담임 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 도 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주님처럼 깨끗하게 사십시오. 의를 행하며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입니다.

다 함 께: 아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처럼 깨끗하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를 행하고 형제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 복		담임 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선교회	낮 집 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저녁성경공부 / 강의 : 신진식 목사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두 교회가 한 교회로

용산교회는 중앙전도관의 활동으로 1929년 이전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이로써 오늘의 청파교회로 발전하게 될 또 하나의 물줄기, 즉 남감리회의 용산교회가 탄생한 것이다.

원익상 목사는 용산교회의 설립자로 1929년 설립 이전부터 "2년간 온갖 정성을 기울여 노력하였으며, 예배당을 건축하여 어엿한 교회를 이루기까지 크게 공헌한 인물이다. …

특히 청년회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청년회는 수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교인뿐 아니라 일반 사람들까지 깨우치는 역할을 감당하였다. 그중 1930년 8월 20일에 열린 것이 <기독신보>에 보도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산) 남감리교회에서는 지난 8월 20일 저녁에 교회 일반 청년들의 특별한 활동으로 "조선의 활로는 정신이냐? 물질이냐?" 하는 문제로 토론회가 이섯는대 예상외에 큰 성향을 일우워 일반신자는 물논이요 밋지안는 사람의게가지 큰 유익을 주는대 그 연사는 죄와 갓다더라
정신 : 신회균 김영득 최봉운 오길수 오기섭
물질 : 리형직 리건만 박한명 김경환 리옥순

곧 청년회에서 조선의 살 길이 정신에 있는 것이냐 혹은 물질에 있는 것이냐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으며 예상외의 큰 성황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토론회 진행은 일반 사람을 계몽하기 위한 성격의 것으로 개화기의 협성회에서부터 시작된 토론회 방식이다. 엡웟청년회도 이같은 방식의 토론회를 도입하여 한국 교회와 사회가 해결해야 할 구체적인 현실 문제를 논의하였다.

청년회는 또 무산아동야학을 열어 경제적인 문제로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일에도 앞장섰다. 용산교회의 야학에는 매일 3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석하여 교육을 받았다.

(용산) 시내 용산교회에서는 지난 8월 1일브터 교회내 여러 청년의 열열한 활동으로 무산아동야학을 여러 매일 30여 명식 모혀 공부하는 중 매우 자미잇게 진행되는 모양인대 이 어린아희들과 쌈을 흘니며 매일 애쓰는 교장 급 교사는 좌와 갓다더라
교장 최봉운
교사 리형직 신회균 김경환 김영득 우수경 신득준

그러나 1930년대 중후반부터 연화봉교회와 용산교회의 침체가 계속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두 교회를 합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이미 1933년 이후 같은 연화봉구역에 속하여 같은 목사의 돌봄과 치리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구성원이 다르고 예배당도 달랐지만, 같은 담임목사의 목회적 관심으로 운영되고 있었기에 이미 두 교회는 그 내용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한 교회 같았다. 두 교회의 거리도 500미터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가까웠다. 그리고 담임목사의 입장에서는 같은 내용의 예배와 행사를 각각의 교회에서 별도로 진행해야 했기에 그 운영이 효율적이지 않았다. 교인들의 입장에서도 행사의 내용에 따라 어느 한 교회로 옮겨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여러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연화봉교회와 용산교회는 합동을 추진하였다. 구체적인 합동 논의가 시작된 것은 이하영 목사가 연회에서 다시 연화봉구역으로 파송된 1937년 4월 이후부터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후 이하영 목사와 두 교회 교인들의 노력으로 '청엽정교회'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청파교회 100년사」 중에서